

# 차갑게 식은 광주 부동산 시장, 조정지역대상 지정 통했나

### 1월 주택매매거래량 2646건...전월보다 49%↓ 전년보다 10%↓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둔화세 지난해 12월 이후 9주 연속 매매가 상승폭 줄어들어

지난해 광주 일부 지역 집값이 급상승하는 등 뜨거웠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연초에 접어들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지역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주택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데다, 광주 역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점

에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전달(14만281건) 대비 35.4% 감소했고, 작년 동월(10만1334건)에 비해서는 1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2646건으로, 전달(5217건)에 비해 무려 49.3%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58건)에

비해서는 10.3% 감소한 것이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지난달 광주의 전월세 거래량은 5260건으로, 전월(2862건) 대비 18.6%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4824건)에 비해서도 11.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서는 25%나 늘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전월세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는 외지 투자세력으로 인해 남구와 광산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상승했고, 정부의 규제로 전국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집

값이 상승, 비싼 집값에 주택 매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가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오르면서 지난 주 0.07%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8일 5개 전 차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9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 감소 현상과 광망세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일부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추후 재개발·재건축,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 광주에 신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당장 주택을 매입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려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광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거래 자체가 크게 줄고 전세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광주지역 집값은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pbxer@kwangju.co.kr



송중욱 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광주은행 송중욱(가운데) 은행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지키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 연말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송 행장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기업 토스(toss) 이승건 대표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전남 휘발유값 13주 연속 상승

### l 당 1450원 돌파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와 함께 13주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 당 광주 1453.42원·전남 1460.29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1.00원, 0.35원 올랐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8원(1.3%) 가량 올랐다.

지역을 비롯한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광주 휘발유 값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1296원) 이후 매 주 오르고 있으며, 전남지역도 같은 시기 1321원 이후 13주 연속 상승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재 l 당 휘발유 값은 11월 말과 비교하면 광주는 157원(12.1%), 전남은 139원(10.5%) 오른 가격이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 주유소 휘발유 최저가는 1395원, 최고가는 1549원으로, 154원 차이가 났다. 전남 최저가는 1375원으로, 최고가(1650원)보다 275원 낮았다.

석유공사는 "미국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소매 판매량 증가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전력, 시민사회와 손잡고 '탄소중립' 추진

### 에너지시민연대와 업무협약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시민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에너지시민연대(사무총장 흥해란)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성 한전 영인본부장과 흥해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이다.

두 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유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 공감대 조성에도 협업한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참여형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추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 등이 있다.

최영성 본부장은 "한전은 전기의 가치, 저탄소 사회 전환 등에 대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광주점, 佛 패션 브랜드 '켄조' 신규 입점

### 매출 효과 해외명품 보장 나서 연말까지 매장 추가 명품관 조성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매출 효과 해외명품 보장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9일 점포 2층에 프랑스 패션 브랜드 '켄조' 매장을 신규 입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20~30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켄조'는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입점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봄 신상품을 10% 할인 판매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를 비롯해 '골든구스', '로레아나토니아' 등 해외명품 브랜드를 지난해 해 기준 대비 약 35% 확대, 총 5개를 보강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까지 브랜드를 6~8개 추가해

'명품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12% 감소하며 코로나19 부진을 반영했지만 해외명품(19%)은 전년보다 실적이 좋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 95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2	30	31	39	43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47,552,661				14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6,633,652				72
3	5개 숫자일치	1,402,692				2,90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2,335
5	3개 숫자일치	5,000				2,346,154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愼무공**, 육지에는 **鄭愼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자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2021 신간

최신간 양장